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자 되길

2026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29일(월)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26년도 목사고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김종연 목사의 기도와 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딤후 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생들을 축복하며 담대히 준비할 것을 권면했다.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

왔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과 관련한 의견도 나누었다.

2026년도 목사고시는 2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시험 과목은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학, 교회성장학 등이다. 이어서 성경고시는 2월 3일(화)에 시행되며,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을 대상으로 주관식과 객관식 평가가 진행된다. 성경고시 이후에는 설교와 면접이 이어져 목사고시 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단 고시위원회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시생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목회 사역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사회 영적재무장성회 성료



김건수 목사
부흥사회 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9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강원도 춘천 오순절기원(원장 김지훈 목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자!”라는 주제로 영적재무장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성회에는 전국의 부흥사와 목회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며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영적 무장에 힘썼다.

첫날 개회예배에서는 부흥사회 지도고문 신재영 목사가 왕상 19:1~4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사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녁 집회에서는 조은혜 목사가 제사장인 여호와의 사자임을 선포하며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이끌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자!”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



둘째 날 오전 집회에서는 조선남 목사가 “성령과 생명의 관계”라는 주제로 성령 안에서의 생명력 있는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오후 세미나 시간에는 안병찬 목사가 “부부행복여행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회복과 신앙상담 기법”을 강의하며 건강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나누었다. 저녁 집회에서는 정

석현 목사가 “벤엘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적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며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 날 오전 집회에서는 오세준 목사가 “제사장 같은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성령 안에서 헌신된 제사가 될 것을 강조했다. 폐회예배에서 회장 김건수 목사는 “부흥사들은 강단에서 오직 성경적인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한다”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복음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3일 동안의 성회 기간 내내 참석자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 말씀과 교제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한 참석자는 “성령의 새 힘을 얻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적재무장성회는 성령충만한 사명자들의 결단을 이끌어내며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다.



“MBC 한국교회 편파보도 즉각 시정 보도와 공식 사과하라”



심하보 목사
서기총 대표회장

서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서기총)는 9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남기총)를 지지하며 MBC의 편파 보도와 외국 보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MBC는 24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한 논란을 전하며, 그와 교류한 충남기총 전 총회

장 박귀환 목사에게 ‘부정선거 몰이한 교회의 목사’, ‘극우 목사’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충남기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기독교교계를 극우 프레임에 가두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편파적 보도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서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충남기총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MBC의 왜곡된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MBC의 즉각적인 시정

보도와 공식 사과 △한국교회에 대한 탄압과 종교 자유 침해 중단 △충남기총과의 연대 등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기총은 “한국교회를 억압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낙인찍는 언론 행태와 정치적 압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교회와 연합하여 싸우고, 끝내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을 회복하는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
로
포
지
트
는
말
을
시
내
고
있
다

이러한 기도(5)

조용목 목사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3~31)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던 중에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앉은뱅이가 즉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물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낳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타났으니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자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남자의 수만 약 오천 명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성전의 총책임자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기를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전도활동을 포기하라는 공회원들의 명령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전면 거부하고 나서자 달리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더 강력한 위협을 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즉시 취한 행동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행 4:24~26, 4:29,30)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간구한 내용을 분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이란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과 결탁한 유대인들의 위협을 말합니다.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무리들의 위협이 있으면 복음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순교를 각오

한 사도들이기에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전도활동에는 심각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직면한 위협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탄압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협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지혜와 열심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신유, 표적,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목격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음을 얻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신자들이 신유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위협당하는 성도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병고침 받기를 기도하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홀로 기도할 때에도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약 4:2).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손현보 목사 불구속 촉구, 무죄추정 존중돼야

한기총 비롯 예장 고신, 합동 등 교단과 한국교회 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예장 고신과 합동 등 여러 교단에 이어 한국교회가 연대해 내는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한기총은 지난 9월 29일 성명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이 손현보 목사에게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고, 구속처분지시 또한 기각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회가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대담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목회자의 직분과 사역의 무게를 감안할 때 도주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주일성수를 지키며 3,500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 도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이러한 판단은 오히려 부당한 낙인과 종교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기총은 또한 “형사사범의 기본 정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며, 이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손현보 목사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만 그 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이번 사건이 종교 탄압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는 과정에서 교회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함께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 촉구…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

예장 고신 제75회 총회,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입장문 발표

예장 고신 제75회 총회(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제75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24일(수) 저녁 회무 시간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한 고신 총회의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같은 날 오후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 발표된 것이다.

앞서 고신 총회는 지난 9월 8일 밤 손현보 목사가 전격 구속되자, 다음날인 9일 임원회를 통해 긴급 성명서와 기도 요청문을 발표한 바 있다.

총회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고신 총회 소속 목사의 구속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손현보 목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를 촉구한



다”고 밝혔다.

이어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다른 목사들에게도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며 “민족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와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며, 나

라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총회는 “고신의 역사와 순교적 신앙을 이어받아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학술세미나 국회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 국가의 의무

정부가 낙태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9월 25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서윤화 태아·여성보호국민

연합 운영위원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된 후 국민의례와 김대식 의원의 개회사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도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태

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아우르는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단순히 낙태의 근거로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을 유지할 권리와 종결할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는 ‘생명에서 재생산으로, 왜곡된 국제권리 논의의 실상’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남인소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도외시한 채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 생명 존중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노총, ‘노숙인 찬양 페스티벌’ 개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감동, 참가자 모두 최우수상 수여

노숙인들에 희망과 비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노숙자(자유인)총연합회(대표 이주태 장로 이하 한노총)가 주관하는 한국노숙자 찬양페스티벌 시상식이 지난 9월 20일(토) 서울 연지동 미션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례적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한 15명 모두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됐다. 이는 도저히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감동적인 찬양에 심사위원들 모두가 심사숙고 끝에 전원 수상을 결정한 것이다.

한노총 대표 이주태 장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너무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는 노숙인들을 보며, 심사위원들께서 도저히 점수를 매기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고심 끝에 참가자 전원에게 최우수상을 주기로 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페스티벌과 시상식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영희 최규년 주홍섭 김선희 최영순 이수정 이경돈 이경순 이

영희 김재은 김지은 윤종수 전기영 김승철 이항섭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우수상자들의 앵콜 공연도 펼쳐졌다.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가수가 된 수상자들은 운문을 다해 관객들 앞에서 각자 준비한 찬양을 열창했다.

“기독교계에 대한 명예훼손 탄압 중단촉구”

총남기총, MBC 편파·왜곡 보도 강력 규탄 성명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정태 목사, 이하 총남기총)는 지난 9월 25일(목) 성명서를 발표하고 “MBC의 편파 및 왜곡 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한 항의 성명으로, 보도에서 직전 총회장 박귀환 목사가 독립기념관장과 단순 면담 및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만으로 ‘극우 인사’로 규정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총남기총은 성명에서 “이번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특정 목회자와 기독교계를 ‘극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간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며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탄압과 종교 자유 침해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귀환 목사는 ‘저희 교회 설교는 3·1절, 8·15 광복절 등 역사적·신앙적 의미가 있는 절기에 맞



추어 드린 예배 설교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MBC가 단편적 사실과 악의적 편점으로 ‘극우’ 낙인을 찍은 것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총남기총은 “이는 한국교회 전체와 충남 기독교계 130만 성도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공정성과 진실을 생명이

로 하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총남기총은 성명을 통해 △MBC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편파 방송을 즉각 시정 보도할 것 △충남 기독교인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만약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세복협, ‘부흥사 위한 부흥성회’ 개최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 “이 시대를 향해 다시 부흥을 힘껏 외치자”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이사장 이규학 감독, 총재 엄기호 목사,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 이하 세복협)는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전남 목포 주안교회와 신안비치호텔에서 제25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세복협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전국에서 부흥사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인사를 전한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시대가 어둡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횃불을 세상을 향해 들길 원하신다. 이제 일 어날 때다. 침묵을 깨고 이 시대를 향해 다시 부흥을 외치자”라고 독려했다.



총재 엄기호 목사는 ‘네가지 확인’이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자세를 제시했다. 주의 두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안전한 그의 손길 아래 은혜를 누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적극 권면했다.

모상원 목사는 ‘부흥사의 영적 자질과 사역의 태도’를 통해 부흥사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며, 성도 앞에 깨어 있는 영력을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윤보환 감독은 ‘부흥회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갈수록 침체하는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윤 감독은 “이렇게 힘든 때에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교회도 흔들리고 있다. 교회가 가시야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했다.

대만 이란대북기독교회, 제주 비전트립

“배경은 달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대만 이란(宜蘭) 지역 교회 성도 32명이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일대를 순례하며 한국 선교의 숨결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이하 세기총) 대만 북부지회장인 김해옥 선교사가 인솔했고, 까멜리아힐과 성산일출봉, 방주교회 등 역사·자연·예배가 어우러진 코스로 진행됐다.

이란대북기독교회 성도들은 방주교회에서 찬양과 기도도 일정을 시작한 뒤,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한·대만 교회의 연대를 위해 합심기도를 드렸다. 이어 까멜리아힐에서는 한국교회가 남긴 선교의 발자취와 문화적 결실을 소개받으며, 지역사회 섬김과 다음 세대 교육 사역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일정 중에는 세기총 상임회장 이승현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합류해 메시지와 환영 인사를 전하고, 방문단에 환영 선물을 전달했다. 상임회장 이승현 목사는 “제주는 한국 선교의 숨결이 서린 땅입니다. 대만 이란대북기독교회 성도들과 그 발자취를 함께 걸으며, 언어와 문화를 넘어 같은 믿음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이 일회성 교류를 넘어 사역 현장에서 서로를 세우는 동역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도 “이번 일정은 관광이 아니라 선교의 길을 다시 확인한 순례였습니다. 배경은 달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세기총은 대만 교회를 위해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추석 명절 선물 및 아동 양육시설 조성

월드비전 홍보대사 공명, 5천만 원 후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홍보대사 공명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추석 선물과 시설 공간 조성 사업에 사용될 후원금 5천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9월 1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열렸으며, 공명 홍보대사와 조명환 회장, 사람엔터테인먼트 이소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후원금은 추석을 앞두고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마음을 나누며 쉴 공간이 부족한 시설 내 옥상이라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쉼터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명 홍보대사는 추석 연휴 기간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명 홍보대사는 “아이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

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다가오는 추석, 이번 선물과 특별한 쉼터 조성으로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명절로 기억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항상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늘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시는 공명 홍보대사님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명은 2024년 3월, 가정복지소년 캠페인을 통해 월드비전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같은 해 5월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돼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기부와 방글라데시 식수 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후원에 힘쓰고 있다.



성서공회,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기증 예식

함께하는교회의 후원으로 765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교 목사 이하 공회)는 지난 9월 16일 공회에서 함께 하는교회(김은동 목사)의 후원으로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765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함께하는교회 김

은동 목사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냄으로 쿠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성경이 들어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

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전했다. 쿠바성서공회 알란 몬타노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쿠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소망과 힘, 그리고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쿠바 구석구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본 공회 호재민 총무는 “쿠바는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쿠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쿠바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하는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1

생명의 말씀

1



안 병 찬 목사

•교단 부흥사회 실무총무
•순복음침례대우교회

서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질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함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라내어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 주십니다.(요 14:16)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네 가지 신앙인

본문: 마 13:3-9, 18-23

집을 찾고, 상식과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길가 같은 마음은 부드럽게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며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돌밭 같은 심령: 뿌리가 없는 신앙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씨가 떨어져 싹은 나지만 흙이 얇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 곧 타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심령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처음에는 뜨겁게 믿고 열심히 섬기지만, 어느 순간 상처를 받으면 금세 시험에 들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이 돌과 같은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를 붙들십니다. 돌밭은 돌을 뽑아내야만 옥토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심령: 염려와 재물에 막히는 신앙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씨가 떨어져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눅 8:14)

오늘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의 근심과 재물 추구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감사보다 걱정이 더 크고, 믿음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일 때,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됩니다.

좋은 땅 같은 심령: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마지막은 옥토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눅 8:15) 결실은 곧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썩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요 15:2)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짐 열렸었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는 남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나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비웃었지만, 아내 엘리자벳은 “천국을 위한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심지어 선교사를 죽였던 이들이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에서 맺힌 결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라

오늘 말씀은 단순히 네 부류의 사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발인가를 돌아보라는 도전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고, 늘 비판만 하는 길가 같은 마음은 아닌가? 말씀을 좋아하나 뿌리가 깊지 않아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돌밭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염려와 재물에 사로잡혀 열매가 없는 가시덤불은 아닌가?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내 의를 갈아엎고, 돌을 치워내고,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씨가 온전히 뿌리 내려 결실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생명이자,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옥토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실되리라.”(고전 15:58)

옥토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 좋은 땅에 뿌리 내린 세את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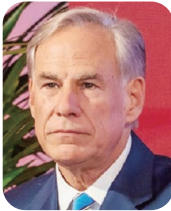
동정

부흥성역 50주년 및 팔순기념 예배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성북교회 원로) 부흥성역 50주년 및 팔순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9월 28일(주일) 오후 서울 성북교회(담임 이요셉 목사)에서 진행됐다.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가 주최하고 성북교회가 주관한 이날 예배는 김대성 목사(부총재, 소명중앙교회)가 설교했다.

텍사스주 여성 전용 공간 남성금지



미국 텍사스주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최근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식별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B 8)에 서명했다.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여성 전용 공간 법안을 강조했다.

‘K-콘텐츠 교육과정’ 한동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청년들의 경북 지역 정착을 위한 ‘K-콘텐츠 교육과정’ 구체적 운영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한동대는 지난 9월 12일 ‘경북형 K-콘텐츠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용역’ 본격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했다.

순교신앙 기린 국토순례



제7차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장 홍호수 목사)가 지난 9월 27일(토) 전남 신안에서 막을 내렸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시작해 경기·충남·전북·전남을 거쳐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 이르기까지, 26일간 650km를 걸으며 90개의 반파제를 세운 순례단의 여정은 단순한 도보 행진이 아니었다며 순교신앙의 의미를 전했다.

서 통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대거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시각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해체 작업에 들어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외교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정부는 불식(不息)시켜 주어야 되지 않는가.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제사회에서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지난 23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약 20분간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런 데 공감대보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관계에 관한 것에서, ‘엔드’(E-Exchange-교류, N-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D-Denuclearization-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차회담을 통하여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과, 2018년 ‘싱가포르선언’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과도 다르다.

물론 선행되었던 회담에서도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평화 회담이 결렬되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은 북

한과 교류나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비핵화로 간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흐려질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교류와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상대의 선의(善意)에 기대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현재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이다. 저들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교류나 관계 정상화를 쳐다나 보겠는가? 또 결정적인 요인은 한 국과의 접촉이 결국 자신들의 체제 붕괴로 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의 한국 대통령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측 인 사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면, 회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오늘의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든 것도 한국의 역대 진보정권들이 안일하고 잘못되게 대처한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면서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 미궁(迷宮)에 빠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계속 ‘왕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유엔총회가 열리는 곳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 만찬에 전 세계 정상들 145명이 초청되었으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과 미국은 절대적이고 전통적인 형제였는데,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아주 중요하고, 국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은 국제무대에 나가서 왜 ‘따따’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호사가들은 언어가 안된 다거나 외교적 감각이 없다가나 심지어 국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오죽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기조연설

을 할 때, 유엔총회 회의장에는 참석자들이 대거 불참하여,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외교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반증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대북관’은 두 국가 체제를 옹인하는 것이 되어, 위험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8월 25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통상 협의’를 하고 나서, 정부는 합의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었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두 나라 간 통상 문제는 끝끝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국 외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국민들로서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왜 외교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수궁하기 어렵다. 한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과 생활동반자법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025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서울 여의도서 개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각종 성 관련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2025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9월 27일(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약 5만여 명의 성도와 시민들이 참석해 국가와 다 음세대를 위한 기도와 외침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서울퀴어축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로, 불꽃축제가 열린 같은 날 여의도 일대를 가득 채웠다. 특히 이틀 전 국회의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말씀과 기도, 회개 촉구

1부 연합기도회는 홍호수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찬양과 기도 후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레미야애가 3:39-40)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남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혁명은 사회 전반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교회가 무시와 조롱을 받지 않도록 신앙의 열매를 삶으 로 드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한국교회와 성도의 거룩(이광진 목사) △성평등 가족부 반대(이선규 목사) △성별정정제도 개선 반대(주요섭 목사) △생활동반자법 반대(김윤기 목사) △차별금지법 반대(염보연 목사) △낙태 전면 허용 반대(서윤화대표) △종교의 자유 보장(안희환 목사) △나라와 위정자들(신상철 목사)을 위해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삼하모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1부를 마쳤다. 심 목사는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악법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현실 앞에 침묵할 수 없다”며 “교회가 끝까지 진리와 복음을 외치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회와 성명 발표

2부 국민대회에서는 찬양과 함께 김은성 목사(영락교회), 김종일 목사(경산중앙교회) 등의 격려 영상이 상영되었고, 위 성조 목사(필그림신교교회)는 “교회는 펄박 속에서도 더욱 강해져 왔다. 지금도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원평 교수, 이용희 대표, 김길수 대표,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 중 비위원과 전문가들이 나서 성평등 명칭 변경, 성별정정 제도,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생활동반자법, 성별 정정 예규 변경 등은 모두 성혁명 범죄화 시도의 일환”이라며 “이는 헌법상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이며 종교 자유 침해”라고 규정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중단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도 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 △낙태 전면 허용 반대 △성별정정제도 개정 중단 △종교자유보장 등이 포함됐다.

대회는 “우리 자녀와 가정,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해치는 악법들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

광주지방회 순복음광주신학교

순복음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9월 1일(월) 교내에서 제25학년 2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학기를 열었다.

이날 예배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진행됐다. 교무처장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최강욱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었으며, 학장 최정식 목사가 열왕기하 2:7-11 말씀을 본문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최 목사는 설교에서 “사역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 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



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간구했던 것처럼 갑절히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후남 목사의 헌금기도와 정찬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가졌으며, 곧이어 열린 교수회의에서

는 신학교의 발전 방향과 교수 사역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2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 모집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학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부인 통한 십자가의 길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9월 15일(월) 오전 11시 부산 동래구 소재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수연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와 회무를 진행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태주 목사(순복음 살롬교회, 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찬송과 기도, 신앙고백, 찬송 후 박정목 목사(순복음세광교회)의 대표기도, 이어 홍찬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가 성경봉독을 하고, 조병희 목사(순복음기장교회, 전임회장)가 자기부인, 십자가’(눅 9: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부인을 통한 십자가의 길임을 강조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합심기도와 헌금기도(김주성 목사, 순복음민들레교회)가 이어졌고, 찬송을 함께 드린 후 광고와 축도의 순서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점명과 각종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지방회 사역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마음으로 부산지방회의 부흥과 지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부산지방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주제 아래 모든 회원 교회들이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예배 후 2부 회무처리를 마치고 주찬미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후 경치 좋은 만덕산자락의 카페에서 차와 다과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10월 하기 수양회 때 만나기로 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정인철 목사)는 지난 9월 16일(화) 안동 성산은혜교회(담임 김재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예배는 지방회 회계 성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종면 목사(순복음평화교회)의 대표기도가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가 대하 7:13-18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지방회장 정인철 목사(상주반석교회)가 헌금기도를 드렸으며, 직전 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



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정인철 회장의 인도로 지방회와 산하 교회들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이 이어졌고, 곧바로 회무를 처리하는 월례회가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다이닝원

에서 풍성한 뷔페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안동댐을 찾아 절경을 감상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교제했다. 댐 위를 함께 걸으며 풍경을 즐긴 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자세 지켜나가야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는 지난 9월 15일(월) 순복음양강교회(담임 연제만 목사)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사회, 신병설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 순복음양강교회 연제만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연제만 목사는 삼하 5:17-25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가 필요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개인뿐 아니라 교회나 나라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속을 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를 마치고 함께 합심하여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사회자 신현찬 목사는 자신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의 인도로하여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

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각종 보고사항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교단 헌법을 준수하도록 권면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모두 참여해 주기를 광고하고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의 기도모임 회의를 마치고, 식장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나누는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강원 고성서 회원 간 친목 사랑의 교제 나눠

경기지방회 추계야유회

경기지방회(회장 김종연 목사)는 지난 9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추계야유회를 열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다.

첫날 일정은 전임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회원들은 ‘능과대’와 ‘척산온천’을 방문해 즐겁고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가 마련되어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후 자유롭게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둘째 날 아침은 호텔 조식 후 전국 방



문 1위 카페로 알려진 ‘바다정원’을 찾아 바다와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속초시장을 방문해 신선한 회로 점심 식사를 나누고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일행은 출발지였던 경기도 포천으로 돌아왔으며, 전임지방회장 최은규 목사의 마무리 기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아쉬움 속에 헤어져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9월 16일(화) 참빛교회(담임 오승희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예배는 김미연 목사의 찬송인도로 시작해 총무 김진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세창 목사가 기도하고, 이어 성경봉독과 사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다. 이후 회장 김남수 목사가 마 6:25-34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염려는 과도처럼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염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목회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처럼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의 인도로 나라와 교단, 지방회, 그리고 병약한 목회자를 위한 합심기도가 있었으며, 박서현 목사의 헌금 기도

와 회장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회무 처리를 위한 월례회가 이어졌으며, 이후 참빛교회가 정성껏 마련한 중식과 선물을 나누고, 인근 카페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는 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유익 나눠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9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향기로운교회(담임 육준수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제1부 예배는 육준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 유광덕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후 찬양과 함께 박웅진 전도사가 창 1장 말씀을 본문 삼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합심기도와 헌금 순서를 통해 신앙을 고백했으며, 문찬우 목사의 헌금기도와 예정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제2부 월례회는 회장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무 박태균 목사가 회원 점명과 서기 보고를 했고, 재



정 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지방회 발전과 교단 사역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협의하며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오세준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지방회는 지난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번 9월 월례회 장소를 제공한 향기로운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교회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지방

회 재정 관련 안내, 헌금 계좌 안내 등의 공지사항을 나누며 회원 간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 경기북지방회 9월 월례회는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유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며, 회원 교회들이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됐다.

교회건물매매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고문로102
교회 앞 6차선도로, 옆 2차선도로 코너위치(상가지역)

대 지 : 110평
성 전 : 약 40평 사택 : 약 24평
식 당 : 약 15평 사무실 : 2평
유아실 : 1.5평
금 액 : 3억 5천만원
***비품일체포함**

연락처 010-2972-2630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자”

스포츠선교위원회 걷기동우회, 군산 선유도 해변길 걸으며 심신 단련



엄하석 목사
스포츠선교위원회
회장



정영진 목사
스포츠선교위원회
회장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영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9월 18일(목) 군산 황금어장과 선유도 일대에서 예배와 걷기 모임을 갖고 목회자들의 건강한 삶과 사역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자”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는 전임 총회장 유봉수 목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먼저 황금어장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배는 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성경봉독에 이어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출 13:17~22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국 약속

의 땅으로 향하는 축복의 길임을 믿어야 한다”며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은 건강한 몸과 마음 위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참석한 회원들을 축복했다.

조은혜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김기인 목사, 경기남서지방회장) △정책위원장과 교단을 위해(최남성 목사, 전임 전라지방회장) △WCC·WEA·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최형택 목사, 전임 교단 총무)라는 주제로 각각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예배는 전임 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2부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위원장과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눈 뒤, 선유도 해변으로 이동해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파도소리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었다. 선유도는 바다와 섬, 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걷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회원들은 해변 산책을 마친 후 인근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를 나누며 서로의 목회 현장을 격려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걷기동우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목회자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목회자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한다.



남원중앙교회, 창립 73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 개최

윤영근 작가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다



정중승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이번 대회는 ‘교회 창립’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제로 열려, 참가자들이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남원중앙교회는 1952년 10월 3일 남원교회 여전도회장 관사에서 기도처로 시작해, 1953년 죽향동 75번지 예배처를 마련하며 공식적으로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현재에 이르렀으며, 2021년 5월 31일 제14대 정중승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해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는 교회’를 비전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개회식은 행복학교 문건동 위원

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중승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73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신앙과 삶을 글로 표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으로 나선 윤영근 작가는 글쓰기 방법과 심사 기준을 강의한 뒤, 대회 주제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종이를 받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시를 써 내려가며, 교회 창립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글 속에 담아냈다.

윤영근 작가는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원광대 대학원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이자 문학가로, 1980년 월간 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상식’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그는 한국예총 남원지회를 창립해 33년간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전북소설가협회 창립 회장을 지냈다. 대표 저서로는 『남원항일운동사』, 『동면제』, 『의열 윤봉길』, 『유자광전』, 『아름다운 삶』,



『독립지사 임철호』 등이 있으며, 전북 문학상, 목정문화상, 전북소설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글짓기 대회의 수상자 발표, 시 낭송, 전시회는 오는 10월 12일(주일)에 있을 예정이다. 교회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글을 통해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성령충만한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9월 22일(월) 오전 11시 전남 고흥시 동강순복음교회(담임 최남성 목사)에서 제74차 9월 월례회를 열고 은혜로운 교제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 개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총무 유영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전임회장 김갑신 목사(새로운교회원로)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창 45:4-8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의 품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믿음의 자세를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회개와 회개와 새벽예배를 통한 깨어있는 기도를 당부하고, 성령충만한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책위원장, 교단 총회와 임원, 산하 지방회 및 지교회의 발전, 전라지방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형택 전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의는 최규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회원 정명, 총무·서기·회계 보고, 정기 모임 일정 결의하는 안건을 처리한 후 최남성 목사의 기도로 회무를 마쳤다.

이후 회원들은 동강순복음교회가 준비한 오찬과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라지방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주제: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의 일꾼”(삼상 12:23, 대하 7:14)

|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15일(수)

| 장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12 / ☎033-334-0555)

| 참석대상 | 전국여교역자

| 문 의 |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010-7592-5575)

홍보부장 안선자 목사 (010-9002-3169)

| 참 가 비 | 2만원(숙식 대림벤엘교회 섬김)

| 계좌번호 | 농협 356-1626-0870-93(조영란)

초대의 글



국장 조영란 목사
대림벤엘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가을빛이 깊어가는 계절, 주님의 부르심 따라
흠어져 수고하던 마음들이 함께 모여
심과 기쁨을 나누려 합니다.
여교역자수련회는 지친 사역에 작은 위로가 되고,
서로의 이야기가 소망이 되어
다시금 걸어갈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웃고 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음 다해 초대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올림

2025년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일정표

	13일(월)	14일(화)	15일(수)
06:00~07:30	찬양인도 1. 윤인주 목사 2. 김은숙 목사	새벽예배 설교: 이복순 목사 사회: 조은혜 목사 기도: 황연선 목사	새벽예배 설교: 탁정신 목사 사회: 정혜란 목사 기도: 김정순 목사
07:3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09:30		평창 600마지기 탐방	코이노니아
09:30~10:30			
10:30~11:00			폐회예배 설교: 정부용 목사 사회: 최정희 목사 기도: 김종애 목사 헌금기도: 배길선 목사
11:00~12:00			
12:00~12:30			
12:30~14:30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귀가
14:30~15:00		영화상영	
15:00~16:00	접 수		
16:00~17:00	개회예배 설교: 총회장 엄하석 목사 대표기도: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 사회: 조병희 목사 헌금기도: 최정희 목사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19:30	부흥회 설교: 한순남 목사 사회: 안선자 목사 기도: 표현자 목사	부흥회 설교: 조영란 목사 사회: 이복순 목사 기도: 김희자 목사	
19:30~			
이후	숙소로~~~ 단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장소로 섬겨주신 대림벤엘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장 조영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직전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국장 조영란 목사
대림벤엘교회

조직

임원단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복지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회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조은혜 목사

찬양팀



오순절찬양교회
윤인주 목사



선한순복음교회
김은숙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예수향기교회
정애스더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은천교회
정해란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부활순복음교회
신영희 목사



서울남서지방회
주시광 순복음교회
이주안 목사



경기지방회
복음교회
이옥희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서지방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경기남지방회
반석샘교회
배길선 목사



일산지방회
늘행복한교회
신종임 목사



대전지방회
대전지교회
김희자 목사



충북지방회
은혜서원교회
정성미 목사



충남지방회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경남지방회
순복음 사랑의교회
최명애 목사



영남동지방회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순복음예찬교회
홍광희 목사



온진지방회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WEA와 교류 금지, 사무총장 면직

한기총 36-6차 임원회, 대표회장 승인 없는 급여인상 불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대표회장의 승인 없이 급여를 인상한 사무총장 면직을 결정하는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한기총은 지난 9월 23일(화)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6차 임원회를 열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 정창모 목사가 상정한 안건을 받아들여 "WEA에 관하여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며 교류를 금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은 김00 목사, 고00 목사에 대해서는 '회개의 진정성'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자료

부를 결정했으며, 전00 목사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한기총 명예훼손 부분을 질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이첩했다. 또한, '쇼킹, 한기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시되었으나 삭제되지 않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건에 대해서도 질서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고경환 대표회장은 김정환 사무총장의 급여 미지급 진위 확인 과정에서, 지난해 535만 원이던 급여가 올해 650만 원으로 대표회장의 허락 없이 인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정환 사무총장의 면직을 결정했다.

예장 합동 11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정 사랑침례교 정동수의 신학 및 이단 규정의 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 정동수의 신학 및 이단 규정의 건에 대한 신학부의 연구 보고에서 이단으로 결정되었다. 예장 합동 총회는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편적 교회 속성을 부정하고 한국교회에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란케 하므로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신학부 보고를 그대로 채용했다. 그동안 총회는 정동수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며, 참여 금지 및 경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이단성보다 높은 단계인 이단으로 결정하고 교제를 단절했다. 총대들은 신학부의 정동수 씨에 대한 보고를 이견 없이 받기로 결의했다. 또한 신학부는 "왕의 재정"의 저자 김미진 씨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했고, 총대들은 보고대로 받았다. 능동적 순종과 회심 준비에 관한 연구 보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는 총회 결의 제108회를 유지하되 이 주제에 대하여 제109회 신학부 보고"를 받기로 했다. 회심 준비론은 용어 자체는 "목회 현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마치 인간이 구원에 개입하고 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 회심 준비론이란 단어를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신록의 시선이 이르는 곳”

동터오는 앞산 지평 눈 열어 시선을 마주하니 푸른 숲결 거친 기상이 미명의 어둠을 걷어낸다. 아 천상의 고고함이며, 영혼의 고향 울려 퍼지는 실존의 향연인가. 벅찬 감격에 못 잊어 힘차게 노래하는 새들의 합성이어. 아 험한 생명의 재탄생 장엄한 천상의 신비 열줄 비파라. 어둠이여 천상의 찬란한 빛 앞에 굴복하라. 절망의 그림자여 진리 앞에 얼굴을 가리 우리라. 넘쳐흐르는 영혼의 갈증을 주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자. 생명 강가 넘치는 기쁨을 향해 우리 서로 말씀의 노를 저어가자. 진리로 웃임고 복음의 감주 삼아 힘차게 전진하자. 아, 신록이여 너의 시선이 이르는 곳을 향하여 기쁨의 나라,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와 의가 머무는 곳 영원한 예수 생명을 위해 한 송이 꽃 예수의 향기를 신록에 담아 더불어 함께 복음의 축배를 들자. 지난 주에 태국선교에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아

름다운 전경과 70프로가 평지로 되어있다. 99프로가 불교의 나라이다. 가이드를 해 준 분은 군인 출신이고 아내는 장교. 본인은 상사로 전역했고 지금은 가이드를 통해서 보람 있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차안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 나아가 가족세트전도 총재에게 배운 영접기도를 용감하게 하였고 고천교회에서 선교하는 태국 선교사를 연결시켜주는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 보람 있었고 교단 목사님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 독안에는 쥐도 잡지 못하면 주님이 책망하실 것 아닌가? 너무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내심 감사했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인의 이야기와 장기이식의 과정 소개

사랑의장기기증본부 초등학교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교재 새 단장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이하 본부)는 서울특별시 지원으로 초등학교 대상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프로그램 「모든 생명은 소중해」의 교재를 새롭게 개편하고,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올해 새롭게 제작된 교재를 통해서 서울 소재 42개 초등학교 8,565명의 어린이가 생명의 존엄성과 장기기증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실시된 「모든 생명은 소중해」는 지난 6년간 618개 학교 5만 821명의 학생들을 만나며 초등학교생의 눈높이에 맞춘 생명나눔 교재 개발을 거듭해 왔다. 특별히 올해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의 협업으로 생명나눔 그림책 2편을 제작하여 장기기증인이 실천한 나눔의 가치와 장기이식의 과정 및 의미를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 담



았다. 새 교재에 수록된 그림책은 △ 저학년 동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푸른 별〉 - 자신의 별 조각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푸른 별의 이야기 △ 고학년 동화 〈불

은 돌고래〉 - 심장을 붉은 돌고래에 빚대어 장기이식의 과정과 의미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 등 두 편이다. 두 이야기는 한국영상대학교 미디어보이스학과 학생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어린이들이 읽고, 보고, 들으며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교재 속 활동도 한층 풍성해졌다. 학생들은 장기의 위치와 기능을 직접 알아보며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마음 처방전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활동도 이어간다. 또한 또래 장기기증인과 장기이식인의 실제 사례를 읽으며 공감 능력을 기르고, 가족·친구·이웃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배우게 된다.

‘경기서부 연합대학 RISE사업단 출범식’

성결대 학술정보관에서 협약 교육연구 자원 공유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는 지난 9월 25일(목) 오전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아람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한세대학교와 함께 '경기서부 연합대학 RISE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경기도와 체결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업무협약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연합체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행사에는 4개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 RISE사업단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여 대학 총장 축사, 최대호 안양시장 축사 영상, RISE사업단 비전 및 추진방향 발표, 공동선언문 낭독, 기념촬영과 네트워킹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4개 대학은 △교육·연구 자원 공유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체계 확립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 직업교육 체계 구축 △경기도 미래성장산업(GX)



분야 특화 인재 양성 △지역혁신과 공동체 강화 등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8(월)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9(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 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두려운 일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한순간에 수 천, 수만, 더 많은 인명을 살생하는 전쟁무기가 되었든지, 혹은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재앙일지라도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여도 역시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수년 전 진행된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으나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배양과정에서 유출되었다는 설도 있다. 두렵고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장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학계에서 조언하는 대로 가능하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자주 씻어야 한다. 공기 전염이 아니라 보균자의 침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으니 기침할 때 조심해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같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단체, 혹은 집단생활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재앙이 임하였던 역사는 여러 번 있었다. 1300년대 말에 유럽 인구의 1/4을 사망에 이르게 한 흑사병이 있었다. 1400년대 말에는 남미 원주민들 90% 이상이 사망한 천연두가 있었다.

현대는 전염병에 대한 경계와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 국가, 국제 간의 협력으로 웬만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한 폐렴 등 돌발 상황에 허둥대고 공포감을 갖게 되는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보이는 대로만이 아닌 신앙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혹시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국가나 개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을까? 최근 중국은 공산독재 강화와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데, 그에 장애가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일에 첫 번째 대상이 교회라고 한다.

2019년에 우한시가 중국의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탄압이 극심했다고 전한다. 우한시에서 48개 교회가 폐쇄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

중국 정부는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 가정에 시진핑 사진을 걸도록 명령하고 성경을 변조하여 사회주의적 성경으로 변조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교회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천 곳의 교회를 파괴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징계하신 것으로 본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겐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하늘에 미국의 폭격기들의 출몰 때 일본인들이 두려움에 울부짖으며 방공호를 향하여 뛰어다닐 때 “당신들은 미군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무서워하라”고 한 말을 새겨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제 15~16장) 진노의 시작이 아닐까?’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그런 사람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

삶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의식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그런 사람

은혜 알지 못하면 그런 고백할 수 없고
속사람이 자라지 않고는 그런 감사할 수 없으니
말씀 안에 뿌리박아 사랑 열매 맺으며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이라.



평생 믿음으로 사시던 분이
천국 가시기 전 고통 속에서 고백하신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믿음이
나의 소원이 되었다.

사설

삼권분립 흔들면 국민이 용납 안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정치적 갈등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가치 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혼돈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국가 전체가 들러올라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이다. 이러한 때 정치권이 헌법 질서를 경시하거나 무너뜨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간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바로 그러한 사례다. 특정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나서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험한 시도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것이 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에 모두 위배됨을 지적하고 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독립되어야 하고, 그 임명 또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재판부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헌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울타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 헌법 파괴를 합리화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사회는 더욱 깊은 불신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될 때 전체주의와 독재로 흐르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른다는 사실이다. 삼권분립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와 같은 제도적 장치다. 권력이 서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협력할 때 비로소 국가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진다. 따라서 삼권분립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교회 또한 이 시점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편법과 불법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동체의 기초를 바로 세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정치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교회의 역할이 크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서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것을 요구한다.

“공평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흐르게 하라”(아모스 5:24)는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에 주시는 시대적 명령이다. 정치권력이 헌법을 뛰어넘으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의 독주를 원하지 않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듯이, 권력자 역시 헌법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동시에 헌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곧 민주 정치를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 길이다.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더욱 단단히 보장될 것이다.

정치권이 이 분명한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겉히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국가를 섬기기를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위기의 때이다. 헌법의 틀이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고, 또한 교회다. 삼권분립의 원리가 명확히 지켜지고,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 민주 정치의 시금석은 헌법 수호의지이며, 그것이 흔들릴 때 나라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정치권이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우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유효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